

미국 존스홉킨스대학병원

13년째 미국 내 종합병원 1위 선정
 월머 안(眼) 연구소 미국 최고의 안과병원
 “근시 교정술부터 당뇨 망막증 까지 세계 최고”
 개발된 새 치료법이 즉시 임상 적용
 수술의 99%가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진행
 「창조적 정신」으로 가득 찬 병원



존스홉킨스병원은 미국 동북부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위치해 있는데 볼티모어시가 이 병원으로 유명해질 정도로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1889년에 세워진 병원이다.

미국의 유에스뉴스&월드리포트지에서 13년째 미국 내 종합병원 1위로 선정됐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다. 미국 동부지역의 명문 종합병원이며, 미국 국립 보건원(NIH)에서 91년이래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있다. 그만큼 환자진료는 물론 연구업적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지키고 있다. 의사 한 사람이 환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완벽한 진료를 추구하기 위해 하루 평균 8명 남짓의 환자만을 진료한다는 것이나 연구와 임상 구분 없다는 점, 그리고 개발된 새 치료법이 즉시 임상 적용된다는 것들이 존스홉킨스 병원을 유명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특히 연구와 임상 구분 없이 개발된 새로운 치료법 중 치료법을 인정받은 것들은 곧바로 환자에게 임상 적용되므로 환자는 첨단 치료법을 세계 어느 병원에서도 먼저 받을 수 있다.

존스홉킨스 병원은 인텔리 헬스(www.intelhealth.com)라는 사이트를 통해 의료정보를 서비스 하고, 환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응답을 해주며, 환자 고유의 ID를 통해 언제라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존스홉킨스 병원이 최고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결정적인 것은 미국 내 의사들 자신이나 가족이 아플 때 보내고 싶은 병원 선정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고의 인력들이 임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같은 처지에 있는 의사들에게도 그 우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 존스홉킨스 월머 안(眼) 연구소

존스홉킨스병원에 속한 「월머 안 연구소」는 정규 직원만 600명에 가까운 세계 최대의 안과 병원이다. 150명의 의사들과 75명의 수련의, 50여명의 기초과학자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당뇨망막증, 백내장, 각막이식 수술, 근시교정 수술, 저시력 치료, 어린이 안질환 치료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부 진료분야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세계 최대의 안과병원이지만 병상은 12개뿐이다. 수술의 99%가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월머 안 연구소에는 임상교수가 100명 정도 된다. 그 중에는 진료는 하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많아 좋은 논문이 많이 나오고, 또한 전공의, 전임의 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세미나 등이 잘 짜여 있다. 망막분야는 망막질환의 내과적인 치료를 주

로 하는 내과적 망막분야와 수술적인 치료를 주로 하는 외과적 망막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내과적 망막분야는 망막혈관센터가 대표적으로 사켓 교수가 책임자로 있으며, 유명한 핀켈슈타인, 브레슬러 교수 등이 망막분지정맥폐쇄, 연령관련 황반변성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당뇨 망막증, 백내장, 각막이식 수술, 근시교정 수술, 저시력 치료, 어린이 안질환 치료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부 진료분야를 보유하고 있다.

유전자 치료에서부터 최신 레이저 기기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눈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 안과수술의 특징은 거의 모든 환자를 마취과 의사 감독 아래 국소마취수술로 시행한다는 것으로 낮 병동으로 운영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입원환자가 거의 없다. 월머 안 연구소는 1925년 당시 유명했던 안과의사인 월머가 여러 독지가의 도움으로 설립하였으나 벌써 70년 이상 되었다. 70년 역사에 역대 과장이 네 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병원 측에서는 한 사람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실제로 월머 안 연구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미국의 유명한 잡지 US News & World Report가 선정한 미국 최고 안과에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연속 6년간 뽑힌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 잡지의 선정기준은 비단 환자치료 뿐 아니라 전공의 교육프로그램, 의학연구수준, 논문의 양과 질적인 수준 등 각종 사항에 걸쳐 있는데,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과 더불어 안과가 항상 미국 내 1, 2위를 다투고 있다.

■ 시드니킴머(Sidney Kimmel) 종양센터

1973년 개관한 이래로, 시드니킴머(Sidney Kimmel) 종양센터는 인간암에 대한 이해와 더욱 효과적인 치료법 발견에 기여 하고 있다. 시드니킴머(Sidney Kimmel) 종양센터는 미국 내 41개의 국립 암센터 지정의 종양센터 중 하나이며, 임상실험, 교육, 지역사회 봉사활동, 예방과 관리 등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메릴랜드 주의 유일한 국립암센터 지정의 종양센터이다.

임상의학자와 연구자들은 긴밀하게 연계 연구를 행하기 때문에, 「킴머(Kimmel)」 암센터에 방문하는 환자들은 혁신적이며 진보적인 치료법을 경험하게 된다.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와 백혈병 등 다른 혈액암의 치료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존스 홉킨스병원은 완벽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센터, 경감의료센터, 타지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오신 환자를 위한 임시 주거 건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브래디(Brady) 비뇨기과 연구소

존스홉킨스 브래디(Brady) 비뇨기과 연구소는 성

인?소아에 이르는 비뇨기과의 내과적, 수술적 분야에 있어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며, 주요 클리닉으로는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정소암, 재건 수술, 내시경비뇨기과학, 복강경검사술, 신장 뇨관 결석, 요실금 등이 있다.

절제술, 근치료전립선 절제술, 요관경검사, 전립샘요도경유, 회음 전립선 절제술 등 최초의 역사적 수술(landmark operations)로 기록되고 있다.

■ 볼티모어는?

볼티모어(Baltimore)는 메릴랜드주에 있는 도시로 수도인 워싱턴 DC의 북쪽 6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의 각처에 보존하고, 근대화한 도시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볼티모어는 대략적으로 이너하버, 다운타운, 그레이트 볼티모어, 공항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이너하버(Inner Harbor)는 볼티모어에서 큰 호텔, 다양한 쇼펜터가 있는 곳이다. 다운타운(Downtown)은 볼티모어의 중앙에 위치, 레스토랑 밀집지역이다. 그레이트 볼티모어(Greater Baltimore)는 볼티모어의 주요도시이며, 볼티모어 시의 남동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져 있다.

공항 (the Baltimore /Washington International Airport = BWI)은 - 다운타운의 남쪽으로 9마일 떨어져 있다. 체서피크만과 대서양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인 요인으로 대체로 온화한 기후를 나타낸다. 여름은 습도가 높으며 늦 여름에서 초가을까지 강풍이 따르는 뇌우와 허리케인이 발생한다. 연중 최고기온 : 25.5℃(7월) 연중 최고 강수량 : 99mm(8월) 연강수량 : 12,700mm 연강설량 : 5,588mm . 동부표준 시를 사용한다. 그리니치 표준시 (GMT)와의 차는 5시간. 한국과의 시차는 볼티모어가 한국보다 14시간 느리다.

외국 관광객은 본국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국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 않다. 자동차 렌트요금 : 1일 \$40에서 시작, 1주일 소형차를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 제한 없이 \$130정도이다.(메릴랜드에서 자동차 렌트시 추가되는 세금은 요금의 11.5%) 전화 지역코드 : 410이다. 지역전화(local calls)를 포함 모든 통화 시에는 반드시 지역코드번호를 돌려야 한다.



자료제공: (주)아이리치코리아 http://irichkorea.com